

建築創作의 活性化와 建築家의 使命

本稿는 지난 6월23일 建築士協會 및 建築學會 後援으로 建築家協會가 主催한 建築討論會에서 發表된 論文中 제 1, 2, 3 主題文 은 지난 6월호에 掲載 하였고 제 4 主題는 7월호에서 다루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建築家職分의 活性化를 爲한 設計組織과 機構의 問題

元 正 洙

建築이 社会的職分을 갖기까지

社会的 叱咤를 받을만큼 脱線을 한 聖職者라도 그의 社会的職分만큼은 그 自身이 익히 알고있음은 너무나 基本的이다. 建築家의 職分에 関한 定義나 規定도 現實과 社会的 必然性이다.

建築家가 職務를 遂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 結果가 뜻과같은것이 못되었다면 이는 반드시 社会가 요청되는 建築이 不在하거나 아니면 서로 歷史를 달리하고 있음이 分明하다할것이다.

최근에 建築職人에 대한 그의 役割을 둘러싼 두드러진 是非도 前에보기 어려울만큼 심각하다.

設計過程의 不實을 補完하기위한 方案으로 建築士의 3人合同事務所機構로 改編되도록 施行됨을 계기로 매우 민감하고 무거운 反應들이 일어났다.

이 계기가 닦쳐온 現實이, 社会가 建築人本職을 無視한 輕박한 事態이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建築人들의 無能한 實蹟이 社会로하여금 준엄한 裁罰과 같은 懲罰을 받아 마땅할것인가하는 建築職分에 對한 現實的 再論 및 再評價를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機會이다.

이 기회에 나름대로 해방후 30年동안 建築家가 걸어온 그 모습과 自취를 연상케 한다. 同職人들의 모임도 結束하고 참다운 建築界를 이룩하는데 더욱 뜻깊은 目的과 結果를 맺기위한 努力들이 조금도 게으름이 없는 點綴이 있다.

建築技芸의 向上과 창달을 위한 方案을 찾기爲해 社会的 役割과 正常化를 爲한 자취도 뚜렷하다.

다만 아직도 建築創作의 現實을 푸른꿈과 창창한 포부를 안고 想像으로나마 그려보는 理想속에서 由來된 抽象

的代名詞로 引用되는것처럼 들린다.

이는 많은 여론과 아울러 細部的인 근거도 지적할만큼 우리 建築界의 年輪과 발자취로 쌓여져 未來를 비쳐볼수 있는 自身的 評價를 自省하기에 充分한 貴重한 歷史를 갖었다고 생각된다.

예를들면 建築同職人들의 生活과 安定의 環境속에서 職分을 다할수 있는 創作代價의 報酬를 相互適正한 基準을 두고 이에따라 서로 마음놓고 힘껏 職分을 다할수 있는 規約이 세워진지 오랜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이規約이 모든同人들이 끌고루 自進해서 의지하고 利用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엄청난 모순을 알수 있다.

建築家自身的 生存을 爲한 第一次의 動機인 報酬에 對한 自發的인 規約, 外面 또는 主觀的인 濫用의 濫用을 너무도 공공연히하며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

工事費에 對한 比率로 公正한 換率을 適用토록 되어있는 設計報酬는 面積當에 對한 時勢로 變造되 거의 大衆庶民들의 許可上의 不可避한 節次에 對한 通行料로 인식한 大多數의 建築報酬의 去來現實과 設計製作의 實行所要근거를 勞務基準에 두고 設計入札이란 妙方도 通用되는 現實을 두고 傷心한 상처를 달릴때 마음의 처방으로 삼을 無力한 建築人의 里程表에 불과한 規約이 되지않았는가?

요즘 景界는 불과 몇년만에 전문가의 独占物에서 大衆 景界학으로 탈바꿈된듯하다.

需要供給의 均衡에 따라 賣買의 地位가 너무도 急變한다.

그와같이 建築界의 自然景界의 흐름도 이미 自然 그대로 以前부터 生態대로 숨쉬고 그대로 흘러왔다.

都市번두리의 自然環境들이 이런 節次에 따라 더이상 떨어날 수 없을만큼 새집들이 씩 들어왔다.

아직도 建築家란 누구나 하나의 階層의 尊稱으로 가려 있으면서 全國을 뒤덮은 建築創作物의 所産을 가려보면 너무도 아득한 階層들이 建築家란 尊稱의 그늘을 사모하고 있음을 안다.

실제로 建築家의 役割이 無醫村을 沫消할 수 있는 醫師와 견주어 예를 든다면 얼마나 많은 建築家가 우리나라 現實에 所要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DOXIADIS의 주장을 빌릴 것 같으면 世界建設量에 불과 5%에 해당하는 量이 소위 建築家專門人에 依해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不過하다고 한다. 가장 높은 占有率의 나라가 英國이지만 이도 40%에 불과하다 하니 이는 아직도 짙은 生活人의 本能的自作物임을 立證한다기에는 너무나 速斷일까?

옛부터 建築職人의 社會參與은 어떤 樣相으로 이바지하였는가 하는 具體的인 研究나 우리에게 絶실한 現實的 專門職人으로서의 效率的 役割에 對한 研究가 極히 少외된 狀態에서 個別的으로 客談으로 열을 뿜을 뿐 社會的 公共的 與論으로 昇華시키는 社會的 尺度로 끌어올리는데에 關해서 너무도 放置되어 있다.

먼 西歐의 例였지만 建築家와 創作物으로 다루어서 體系化된 歷史는 “르네상스” 시대이다. 中世紀의 專門匠人으로서의 “길드”(同業組合)로 組織되어오던 技術職人에서 建築藝術家로서의 새로운 境地의 建築家로서 變化를 가져올 때에도 종래기존 同業機構였던 “길드”와의 갈등은 컸었다.

더우기 이제는 建築의 境地가 建築許可用通行料에서부터 創造의 藝術인 建築作品에 對한 代價에 이르기까지 그 樣相은 極히 多様하며 一般社會人이 建築世界의 窓口를 찾을 때 이러한 現況을 감안하는 本能的인 認識들을 가진 現實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一般社會에 對한 自身의 資質과 能力을 덮어둔 채 建築窓口를 一元化하여 統制하였다면 그들의 不便은 과연 해소될 것인가?

흔히 國內建築創作活動의 與件의 理解不足으로 創作發展向上이 어렵다는 建築界의 비명이고 보면 建築主人 社會의 不滿은 또한 創作物의 質의 正當한 代價를 치르기에 不信이 두터워 엄청난(실은 國內 건축가에 對해서) 代價를 先進國用 役팀에 지불할 망정 國內 설계 능력을 육성하는 長期的인 안목의 國論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에 대한 깨우침은 他助의 뒷바라지로 幸運에 편승하려는 安易한 생각을 하는 듯한 建築界를 보다 못해 建設部의 새로운 “엘로카드”인 設計組織의 새로운 對策 方案이었으리라고 본다.

設計組織과 機構運營의 現況

設計創作方法은 어떤 形式的 制度에 맞추어 나가기보다 變遷하는 社會의 要求에 適應될 수 있고 效率的 建築創作을 創出하여 建築人自身이 뜻하는 바 目標에 도달할 수 있는 方案은 항상 새롭게 일어나도록 되어야 한다. 이는 好景氣나 불황의 어느 경우라도 生存할 수 있는 建築職分의 本能的 必然性이다.

美國的, 西歐의 등 모두 그들의 狀況이다. 우리에게도 當장 適應해나가고 있는 現實이 있다. 그런데 道德的 觀念, 競爭의 生存의 本能 등으로 因하였음인지 巨視的 원대한 共通分母의 未來希望의 公約數를 함께 찾아보기 위해 모두가 힘들어 겪어나간 貴한 事蹟들 그리고 쓰라린 경험에서 이를 土臺로 하여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方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많은 設計組織體들의 設計過程들은 人的, 財力, 專門的 素養 등 多樣的 與件에 따라 千態萬相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設計組織과 運營의 類型은 圖表에서 몇 가지로 추려본 건인데 A형의 예를 보면 涉外運營管理의 職務를 代表者가 全的으로 담당한다. 그러나 專門的 設計過程은 “파트너”에 依해서 處理되어나가므로 極히 運營面에서 優性を 發揮할 수가 있다. 但 建築主의 要請을 100% 實務陣에 傳達되는 能力에 따라 그 成果는 極을 달리한다. B형의 경우는 大型化된 組織에서 “프로젝트”별로 또는 고객 거래先에 따라 담당부서가 여러개 있게 된다. 이때 “파트너”들의 橫的인 有機的 능력에 따라 그 成果도 달라진다.

C형의 경우 代表者共同體의 경우이다. 한층더 “프로젝트” 계획자와 설계작성자와 전문담당으로 분리된다. 建設 및 시방작성까지 독립된 기능과 일괄처리하는 등의 樣相에 따라 E형의 경우에 있는 設計展開과 技術處理의 과정에서 비교해 보았다. G형과 H형의 경우 소규모 또는 순수한 自身의 創作物로 独占消化하는 경우라고 보는데, G는 건축조형 과정에 더 뜻을 둔 경우이고 H는 대인관계 처세에 더 적응성이 높은 경우의 비교이다.

이와같이 建築人의 職分과 職務와 役割이 各樣各색으로 派生될 뿐만 아니라 現代建築으로 이룩되는 要素, 要因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이를 判斷, 收集해야 하며 時間的 制約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여러 부담들은 建築人의 能力을 더욱 鈍化시켜주고 있다.

設計組織과 類型別特性的 圖表란 단순한 建築家의 適性 類型을 나눠볼 수 있는 假定이다. A의 경우 建築家(?)

는 形式일뿐 受注如世의 專門人이다. B형이 아마도 現實的으로 專門의 能力과 責任의 能力이 풍기는 경우라면 C형은 고지식하다는 世評의 天職으로 즐기려는 경우라고 보겠다. 이밖에 여러 個別의 人性에 따라 또 環境的 与件에 따라 類型을 발견할 수 있으며 앞서말한 建築設計過程

때때로 “프로젝트”를 끊어모이기 위한 수단으로 結束되 어진 경우라면 너무도 서로 人間的인 손실의 큰 傷處를 뒤에 안길뿐이라는것은 덮어진채 잘알려진 경우이기도 하다.

表- 1 設計組織과 運營의 類型

類	A	B	C	D	E	F	G	H
渉外 運營	■	■	■	■	■	■		■
計劃	■	■	■	■	■	■	■	
設計 의 展開			■	■	■			
技術 處理	■	■			■			
代表責任者 內容把握度								
設計作成 의效率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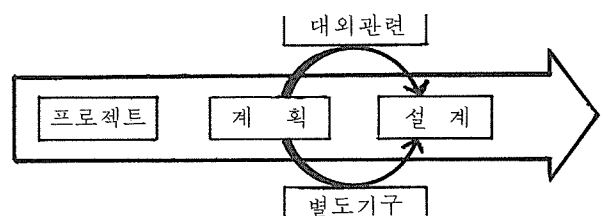
表- 2 設計組織의 類型別 特性

	對外	運營	計劃	設計	構造	技術
A	●					
B	●	●	●			
C		●	●	●		
D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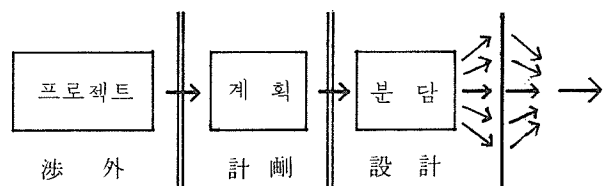
의 複雜化되어가는데 對한 方案으로 여러 建築家가 서로 相互補完하는 自然生態的結果는 極히 自然形狀이며 이러한 類型은 소위 우리 의 교과서처럼 즐겨얘기하는 美國의 S.O.M. D.M.J.M 등 先進國도처에 얼마든지 볼 수 있다.

表- 3 設計處理過程의 類型

● 個人中心의 設計過程



● 協力機構體의 設計過程



역시 建築創作의 瞬間에 가장 뜻을 두는 天職일진대 이에 못지않는 人力集約에서 이룩되는 不可避한 方法으로 因하여 人間의 關係이다.

共同理念과 目標를 共有하여야할 前提가 뚜렷해야 한다. 代表者에서 補助人에 이르기까지.

이를 극복한 大型組織은 小數의 運營層이 主軸을 이룬 뒤 量的인 기능은 철새들처럼 드나드는 人力으로 유지하는 先進國들의 經營관리의 合理化와 人力管理의 專門能力을 開發한 類型의 設計組織이다.

設計動機와 發注

建築家의 職分과 役割에 對한 의문은 아직도 살아지지 않고 개운치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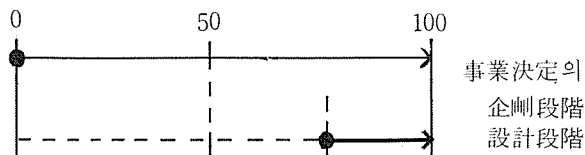
어느 建築主가 建築家를 불러놓고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하고 던져주었다면 무슨짓을 해볼까.

한번쯤은 누구나 제도판을 마주한 사람이면 생각이나 마 꿈이라도 가져볼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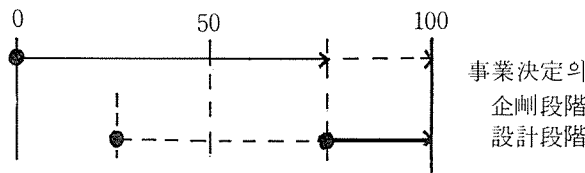
建築主란 建物의 所有權者가 되려는 設計依頼者이면 누구나 얻어듣는 尊稱이다.

프로젝트 受注段階와 設計作業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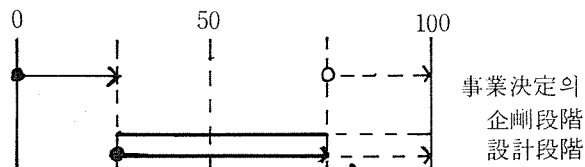
小規模 私的 프로젝트



大規模 私的 프로젝트



一般 公的 프로젝트



따라서 建築家에게는 一次的인 生活力의 源泉을 부여 넣어주는 고객이며 上典이다. 이것이 요지음에 굳혀진 一般常識이요 建築主란 尊稱이다.

고삐를 당기는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顧客의 不文의 特權이 너무도 濫用되었음인지 規制의 細目도 世態를 反映해 준다.

設計着手可能的 決定的 要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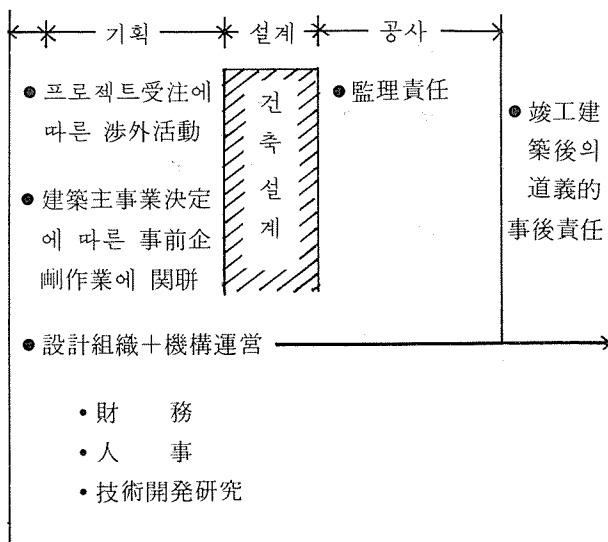
建築主 | 所要空間 施設의 必要
 工事費 予算資金
 施設 建築專門內容의 干涉理解
 事業承認 및 認可에 따른 諸般事項

建築家 | 名聲, 作品水準
 建築主의 事業決定過程이 內外的 要因에 따라 不確實한 時間 및 建築設計 過程에 相當한 混亂을 갖는다.

建築主가 멋대로 해놓고도 建築設計者가 혼난다. 主人의 비위도 보살피고 버릇도 고쳐주어야 하는 건축가의 새로운 職分의 高층이 더 늘어났을 뿐이다.

“미켈란제로”란 사람이 만든집을 쳐다보며 아무리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도 목이 빼뺨어질 지경으로 미쳐서 해냈다는 것을 마주보고 내자신 질려버렸는데 우리의 現實로 돌아와 正當한 戒집을 갖고져 하는 名建築主에 의해 미쳐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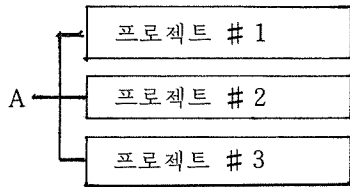
設計過程에 建築家의 業務負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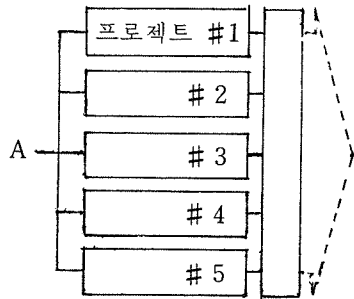
建築計劃過程도 過去の 天才建築家の 直感的 案出方式에서 現在는 미주알 고주알 꼬치꼬치 따지고도 깨스폭팔 등의 불의 사고까지 따져나가는 段階 計劃法이 高度로 開發되어 졌다.

이이는 快코 새로운 것이 못된다고 본다. 孫子兵法도 “적을 알고 남을 알면……”하는식의 地극히 論理体系가 널리 익혀 있었으며 “다빈치”의 해부학 創造는 지금을 뒤따르지 않는다.

● 建築家 個別特性



個人能力限界만큼 全設計作業過程을 關係함.



多프로젝트의 計劃 段階에서 內容을 主導한後 各專担部 課에서 進行處理한 다.

그러나 建築設計의 着手란 결코 偉大한 建築藝術家가 將次 出庫를 대비하여 事前에 準備하기 爲해 意로 製作하는 것이 아닐진데 그 動機는 投資者의 目的任서서 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앞서말한 名建築主란 바로 自身の 目的과 目標의 鮮明한 意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한것은 視覺의 表現의 注文을 밝힐것을 뜻하는것이 아니며 生活과 未來에 對한 人間의 計劃을 뜻한다.

이러한 目的을 갖지 않은 設計 “프로젝트”를 일감으로 얻어삼고 부터 풀어나간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볼수 있다.

“프로젝트”受注段階와 設計作業過程의 國表에서는 세가지의 類型의 例를 들고 있다.

小規模私的 “프로젝트”란 個人建築主의 경우 대체로 住宅의 例인데 計劃 및 設計가 完成段階에 비로서 建築主의 慾望과 意圖가 들어나면서 고쳐지는 경우며 甚하면 工事 段階에 直接의 間波修正, 變更을 불사하는 경우도 많다.

다음의 大規模私的 및 一般公的 “프로젝트”란 官公公署 및 企業체에서 設計를 依賴하였을 경우 計劃設計가 具體的으로 進行된뒤에 計劃上指針이 建築主에게서 올라나기 如作되는 경우인데 限界가 뚜렷하지 않는 “프로젝트”受注 過程으로 因한 設計作業의 되풀이를 甘受할수 밖에 없는 建築家들의 專問的 計劃對策에 對한 能力欠與로 因하여 도리어 建築主로부터 不信을 받고 財政的 向上도 建築界 全般에 기여시킬수 있는 風土가 造成이 되지 못하는 現實도 이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바라건데 우리 建築界가 30余年 功過를 廉備한 많은 발자취를 남겨 놓았다. 이를 좀더 誠意있게 돌아다보며 앞날의 대한 우리 共同의 目標을 爲해 다루어진다면 부끄러움이기 뻔으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기회에 우리 建築創作의 健全한 能力을 向上시키는 背景을 갖기 爲한 設計組織과 機構에 關한 研究를 촉진시켜 우리 人的 適性和 社會與任에 呼應할 수 있는 方案을 開發하여 권장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이에는 가장 힘을 모을수 있는 建築同人의 積極적인 參與만이 있을 뿐이다.

自發的인 意慾과 現實에서 우리에게 期待하는 未來에 對해 앞서서 適應해 가는 建築人 스스로의 場을 펼쳐야 한다. □